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8월 2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창 1:26-31, 3:4-10

제목 : 성찰하는 신앙 · 회복되는 형상(1):

“너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답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존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창 2:7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동물입니다. 전도서는 이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개도 훈련을 시켜서 식사기도 중에 두발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많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시청)이건 훈련된 개의 모습이지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더구나 개의 영혼 장례식까지 치러 달라고 요구하는 분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개를 사랑했을 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도 없습니다. 만약 동물에게도 영이 있다면 이것은 범신론주의자가 됩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앤드로포스 Andropos>입니다. 그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두 발로 서서 걸으며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사유 즉, 생각하고 반추할 수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없으면 질문도 안하십니다. 왜 동물들에게 질문을 안 하십니까? 동물들은 사유를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석을 하는 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한 12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답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8월의 목회주제는 <성찰하는 신앙, 회복되는 형상>입니다. 매주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휴식의 계절인 8월에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삶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8월의 목회 주제가 주는 의미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성찰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성찰하다는 한자는 <省察>입니다. <省(살필 성, 깨 닫을 성)+ 察(살피다 찰, 살펴서 알다 찰)>입니다. <자세히 살펴서 깨 닫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省자의 구조는 少(적을 소)아래 目(눈목)자입니다. 눈을 작게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 놓이지 말고 잘 세밀하게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察의 구조는 宀(집 면)자 안에 祭(제사 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제의를 지내는 일은 신의 계시를 다루는 일이니 그 방식이 복잡하니 지극히 적은 것까지도 잘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찰(省察)의 한자어 두 글자의 자구적인 의미가 모두 잘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살필 '省(성)'자가 '반성(反省)'한다>는 의미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찰하다>는 의미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뇌우치다> <돌아보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을 살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써 이런 성찰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지?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왜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등등 그 음성에 대하여 깊이 성찰해야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 음성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1. 성경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 2. 자연 (하나님의 걸작 품) 3. 선포되는 말씀 (설교) 4. 성령의 임재 (기도와 묵상중) 5. 주변의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 6. 갑작스런 사건 또는 사고 재난 7. 신령한 꿈 또는 환상 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들은 그 음성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롬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 6번 갑작스런 사건 또는 사고 재난에 대한 예입니다. 올 해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인간의 삶의 터전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많은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성찰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선 평범한 일상의 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이 모여 마음껏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구역 예배로 모이고 실버스쿨도 모이고 나들이도 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모임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정말 아무 일 없는 게 최고의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최신식 의료 시설을 갖고 있고 또한 엄청난 최첨단의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7월은 우주 탐사에서 화성의 달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잇따라 화성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9번째 화성 착륙선, 중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사상 첫 화성탐사선입니다. 세 나라가 7월에 한꺼번에

화성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유는 이 때가 지구와 화성과의 거리가 5500만km로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2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7월에 쏘아올린 우주선들은 예정대로라면 약 5억km를 날아 내년 2월 화성에 도착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처음 쏘아올린 화성 탐사선 '아말'(희망이란 뜻의 아랍어)인데 발사 후에는 시속 3만4000km의 속도로 지구 궤도에 진입한 뒤, 이후엔 시속 12만1000km의 속도로 화성까지 7개월을 날아갑니다. 화성에 도착하면 궤도를 돌며 화성의 1년(지구 기준 687일)을 모두 담은 기후도를 완성해서 지구로 보내는 목표를 갖고 발사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과 중국이 우주 지배권을 다투느라고 화성 무인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참 인류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몸 안에 들어오는 이 작은 세포 바이러스 하나 퇴치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를 생각하면서 특히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금성교회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뭘 까요? 작년에 코로나 19가 왔다면 50주년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을 까요? 특히 바자회와 이웃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큰 감동을 받고 가셨던 메시아 연주회는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 감사할 뿐입니다.

코로나19의 아픔을 성찰하는 가운데 주신 인사말도 있습니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코로나 19가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다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준 찬양은 평안의 찬양입니다. 평안의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런 것들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들은 음성들입니다.

이 것 외에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성찰하면서 들은 음성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음성은 1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중에 오늘의 질문은 선악과를 따 먹은 후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떨고 있는 아담을 찾으려는 하시는 말입니다. 성경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창3:9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무엇을 묻는 질문입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의 위치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었느냐? 살롬이 깨어졌느냐? 그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성오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늘 두 개의 주소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육의 주소입니다. 제 육이 거하는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7가 길 삼환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제 영혼의 주소는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친 후에 주님의 품안에 거할게 될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바울이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론을 보면 이 것이 분명합니다. 빌립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1:1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주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육적인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선 영적인 주소지에 대한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3:1-2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사는 영적인 주소의 삶을 늘 삶을 성찰하면서 잘 살라는 권면입니다. 혹시 내가 지나갈 것 같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 같은 땅의 것을 집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을 상실이라고 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건강도 자식도 집도 다 놓고 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들에 깊이 집착하면 상실의 아픔이 왔을 때 그 아픔에만 빠져 있어서 우울해 하거나 슬픔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휴식의 계절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질문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깊이 성찰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영원하지 않을 땅의 것만 집착하면서 그 것만 바라보면서 움켜잡으면서 살고 있지 않았는가? 손바닥을 펴보면서 깊이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육신이 거하는 땅의 삶을 헛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덴동산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나간 자리를 통해서 즉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갈 길입니다.

8월의 마지막 찬양은 442장입니다. 특히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택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론 세상

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지금의 삶의 모습이 참 기쁘고 즐거운 데 밤 깊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있고만 싶은 데 주님은 선교사적인 사명이 있어서 괴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시택으로 선교사로 파송 받은 것처럼 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로 가서 더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일터로 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 고 합니다. 더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주변을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드로포스>의 인간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의 사명입니다.

3절을 결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철 휴식의 기간에 “너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깊이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없어질 땅의 것만을 집착하면서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나눈 과연 살고 있는지?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천국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지?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회복이 되어서 위에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땅에서 사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는 모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이 이루어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에덴동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에덴동산이 회복되는 복된 모습이 주변으로 퍼져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삶을 깊이 성찰하시면서 답을 날마다 하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